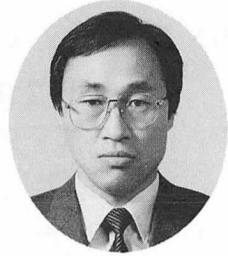


# 돼지개량과 가축개량 총괄제도



이수현 과장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관리과)

## 1. 머리말

오동나무를 심는 뜻은 봉황을 보고자 함이다. 분명 심고 가꾸는 뜻이 있다. 봉황을 보고자 할 일도 없거나 보고자 한들 보아질 것 같지도 않을 때에는 애시당초 애써 오동나무를 심어 가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양돈경영도 이치는 매일 반이다. 시설 갖춰 알뜰살뜰 돼지 기르고, 시장동향 살피고, 때 맞춰 돼지 실어내고 하는 것은 소득을 보고자 함인 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돼지팔아 받은 돈에서 돼지 길러 내느라고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서 거기에는 자가 인건비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 및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양돈소득이 높다는 것은 자가노동의 보수가 많고 자금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그 양돈소득이 다른 일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수

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 양돈 경영자는 양돈경영을 계속하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양돈 경영자라면 누구나 양돈경영의 앞날을 전망하게 되고, 이때에 일차적으로 짚어보게 되는 것은 앞으로 돼지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적게 들이고 많이 받아야만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의 돼지 값은 기본적으로 수입돼지 고기의 국내 유통가격에 좌우될 것이고, 비용의 절감은 돼지의 능력이 좌우되는 것이므로 양돈 경영자가 양돈경영의 앞날을 전망하기에는 기본적인 사항부터가 유동적이다. 따라서 양돈경영의 앞날 전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의 수입개방이 우리의 양돈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돼지개량에 관한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 2. 돼지고기 수입개방 영향

### 가. UR협상 결과

'95년 1월 1일 부터 '9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해마다 돼지고기 수입량을 정하여 수입하되 관세는 25%로 하고, '97년 7월 1일부터는 돼지고기 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되 관세를 33%로 일단 높였다가 해마다 조금씩 낮춰 2004년에는 25%로 하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육으로 '95년에는 2만 2천톤(110kg 비육돈 환산 31만 3천두), '96년에 2만 9천톤(41만 8천두), '97년에는 6월까지 1만 8천톤(26만 1천두) 수준으로서 국내 돼지고기 수요량의 5% 미만이다.

### 나. UR 타결이후 수입전망

「돼지고기 시장개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한 나라는 대만, 덴마크 및 미국 등으로 전망」되고 「'97년 6월까지의 쿼타(Quota)제도 유지가 가능하고 쿼타량이 국내 수요량의 5% 미만이지만 신규수입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 피해가 전망」되며, 「'97년 7월부터 관세 33.4%를 부과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면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위별 국내의 가격차가 크게나는 특정부위(삼겹살, 갈비 등)를 중심으로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현행 관세를 다소 인상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세율이 점차 낮아지므로 국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지 않으면 수입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UR 농산물 협상결과 해설 '93. 12. 농림수산부)

### 다. 돼지가격 전망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국내에서의 판매 가능가격을 '93년말 시점에서 추정해 본 결과 kg당 지육은 2,069원, 삼겹살은 1,580원이었다(농림수산부 축산국). 이들 가격과 서울 3개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격, 농가 판매가격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돼지가격을 전망해 본 것이<표 1>이다. 즉, 지육형태로 돼지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수입 돼지고기 가격에 상응하는 국내산의 산지 비육돈 가격은 15만원 수준이 되고 돼지고기가 삼겹살로만 수입된다고 할 경우에는 9만 7천 원 수준이 된다.

<표 1> 국내산과 수입 돼지고기와의 가격비교('93)

구 분	지 육		삼겹살 (원/kg)	두당환산 (천원)
	(원/kg)	(천원/110kg)		
국 내 산(A)	2,148	155	4,667	287
미 국 산(B)	2,069	(150)	1,580	(97)
비 교(B/A)	96%	96	34	34

- 주) ○ 국내산은 서울 3개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 수입은 현지 도매시세에 관세 및 제비용을 포함한 농림수산부 추정가격임.  
○ 산지가격은 농가 판매가격임.  
○ 미국산의 산지가격은 국내산 지육가격이 미국산 지육가격 수준일때 이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농가 판매가격 추정치임.  
○ 삼겹살의 두당 환산액은 미국산 삼겹살 가격수준에 상응하는 돼지가격 추정을 위해 정육률 56%, 생체 110kg을 적용한 것임.

이것은 다시말해 돼지고기 수입이 완전개방되는 '97년 이후에는 국내산 돼지의 산지가격이 110kg 비육돈 기준 15만원 이하가 되어야 함은 물론 10만원대에 바짝 근접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수준에서도 양돈경영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지속적인 양돈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 3. 돼지 생산성 향상방안

돼지가격을 낮추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돈경

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돼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돼지는 돼지대로 생산하되 경비는 줄이라는 것인데 비육돈 생산경비(전체 생산비 중 자가 노력비, 자본 이자를 제외한 경영비)중 자돈대가 35%, 사료비가 56%로서 두 비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1%(전체 생산비의 75%)임을 감안한다면 생산성 향상 방안은 이 두 비목의 경비를 어떻게 줄이느냐로 모아진다.

먼저 자돈대를 줄이는 것은, 그 산정방식이 「모든 사양과 번식 관리에 들어간 총비용」을 「이유자돈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이유 자돈수를 얼마까지 늘리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사료비를 줄이는 것은 구입 단가를 낮추는 문제와 같은 양의 사료로서 살찌우기를 어떻게 잘 하느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 그런데 사료 구입단가를 낮추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여기서 논할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돼지 생산성 향상 방안은 번식능력 개량과 산육능력 개량으로 간추려진다.

한편 가축개량 외적으로 전체 생산비를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사료 구입단가 낮추기 외에도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인건비 절감방안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한 농어촌 발전대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94. 6. 14 농림수산부 축산국)에 따르면 비육돈 마리당 노동시간을 10.9 시간에서 1.1 시간으로 절감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방안들이 지혜가 모아져서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돼지 생산비는 현재 수준에 비해 20% 정도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수준이면 우리 돼지고기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4. 돼지개량과 가축개량총괄제도

66

돼지개량분야에서는 2001년까지의 개량목표를 종돈과 비육돈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는데 비육돈의 경우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를 현재의 17.7두에서 20.0두로, 그리고 일당 증체량을 현재의 923g에서 968g으로 잡고 있다. 돼지개량 기관으로서는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대한양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하고 개량총괄기관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99

돼지개량은 양돈경영에 소요되는 사료 등 기자재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돼지 생산비 절감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면서도 아직 체계화 되어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돼지개량에 관련된 주체는 이를 크게 ① 정부의 돼지개량 관련기관(축산기술연구소, 각 도종축장등) ② 민간분야의 돼지개량 관련단체 및 업체(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양돈협회, 종돈업등록업체) ③ 양돈 경영자 ④ 소비자인 일반 국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주체는 역할면에서 소비자는 자기가 선호하는 품질의 돼지고기를 표현하고(그 표현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수단은 여타 개량주체들이 확보), 양돈 경영자는 보다 절감된 가격으로 그러한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고, 종돈업체는 그러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돈을 생산, 공급하고, 정부의 개량기관은 그러한 종돈 생산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관리·지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 수행이 체계화 되어있지 못함으로서 돼지 개량추진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돼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가축개량총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축산법 제5조). 즉, 농림수산부장관은 한우, 젓소, 돼지, 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량 목표를 설정, 고시하고, 그 개량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량기관을 지정함과 아울러 개량총괄기관도 지정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통한 가축개량의 체계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돼지개량분야에서는 2001년까지의 개량목표를 중돈과 비육돈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는데 비육돈의 경우 모든 두당 연간 출하두수를 현재의 17.7두에서 20.0두로, 그리고 일당 증체량을 현재의 923g에서 968g으로 잡고 있다. 돼지개량기관으로서는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대한양돈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로 하고 개량총괄기관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서의 축산기술연구소는 축산법령에 근거하여 ① 돼지를 포함한 가축개량 계획 수립 ② 가축개량계획에 의한 사업의 평가 ③ 가축개량기관의 개량사업의 협의·조정 ④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⑤ 기타 가축개량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같은 가축개량총괄제도의 운영을 통해 총괄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가 돼지개량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돼지개량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 비육돈의 개량도 평가체계 구축 그리고 돼지개량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이다. 먼저 돼지개량 유전자원의 체계화관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돼지를 생산해 내는데 소요되는 중돈을 특징에 따라 유형화하여 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중돈의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의 확대를 통해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비육돈의 개량도 평가는 돼지개량의 효과가 양돈 경영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가능한 한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개량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은 첨단 유전공학기법 등의 실용화를 통해 양돈 경영 개선 및 돼지개량 추진을 도모해 나가자는 취지의 것으로서 성감별 인공수정용 정액 생산등 돼지 인공수정 관련 기술개발과 이외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가축개량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며 모든 개량주체들이 필요한 때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 5. 맺는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가 국제적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돈경영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돼지개량 관련 기관의 좋은 돼지씨 만들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같은 단계는 양돈경영 관련분야, 예컨대 생산기자재, 수의 등 관련 기술용역, 수급 및 가격안정, 첨단화된 유통체계가 모두 국제 경쟁력을 갖는 수준에서 치밀하게 짜여진 다음 그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인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둘러보았을 때 우리의 현실은 모든것을 다시 시작하는 각오를 요구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러한 혼돈상태의 양돈산업이 체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전력투구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된다.